

위성미, 메이저 첫 우승 노린다

■ 나비스코챔피언십 1R

프로 전향후 LPGA 첫 출전 6언더 2위 안젤라 박 4위·이선화 5위·안시현 9위

'1천만 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프로 전향 이후 처음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 첫날부터 우승후보답게 맹타를 휘둘렀다.

위성미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골프장(파72·파6천46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뽑아냈다.

보기없이 6개의 버디를 쓸어담은 위성미는 10언더파 62타를 때리며 단독 선두에 나선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8개홀에서 한 번도 그린을 놓친 적이 없는 정확도 100%의 킥퍼터 아이언샷을 뽑낸 위성미는 약점으로 꼽히던 2~4m 거리의 퍼팅에서도 실수가 없었다.

'프로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1~2m 거리의 퍼퍼트 역시 꼬박꼬박 홀 한 가운데로 굴러 넣었다.

특히 장타보다는 정확도를 염두에 두고 티샷은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를 주로 사용한 위성미는 페어웨이를 벗어난 드라이빙이 단 3차례에 그쳤다.

또 러프에서 나무 사이로 그린을 공략해야 했던 2차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그린에 볼을 올려 향상된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올해 개막전부터 이어져온 '한류'는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도 여전했다.

브라질 교포로 최근 캘리포니아로 이사는 아마추어 유망주 안젤라 박(18)은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때려 오초아, 위성미, 스테이시 파라마나수드(미국·67타)에 이어 4위에 올라 '아마추어 돌풍'을 예고했다.

또 신인왕 레이스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선화(20·CJ)도 3언더파 69타라는 준수한 스코어카드를 적어내 줄리 잉스터, 플라 크리머(이상 미국), 카렌 스티플스(잉글랜드) 등 쟁쟁한 우승 후보들과 함께 공동5위를 달렸다.

2언더파 70타를 친 안시현(22·코오롱)이 공동9위에 올라 시즌 첫 '톱10' 입상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초아는 신들린 아이언샷과 뜨겁게 달궈진 퍼팅 감각을 앞세워 보기없이 무려 10개의 버디를 뽑아내 9년 묵은 코스레코드를 갈아치웠다. 62타는 지난 1997년 메어리 베스 집머만이 세운 코스레코드 63타를 1타 경신한 것.

박세리(29·CJ)와 박지은(27·나이키골프)은 나란히 2오버파 74타로 부진했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경기 내내 홀을 외면한 퍼팅 부진에 발목이 잡혀 이븐파 72타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1라운드 두번째 홀에서 위성미가 티샷을 하고 있다.

미켈슨 '코스레코드' 단독선두

PGA투어 벨사우스클래식 1R

세계랭킹 4위 필 미켈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벨사우스클래식(총상금 530만달러) 첫날 코스레코드를 세우며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마스터스대회에 대비해 몸을 풀었다.

작년 대회 챔피언이자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리는 미켈슨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델루스TPC(파72·7천293야드)

슈가로프코스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10개의 버디를 쏟아내는 맹타를 휘둘러 9언더파 63타로 리더보드를 맨 앞줄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 카드 발달 위기에 몰린 무명의 개빈 콜스(호주)는 보기는 1개에 그치고 17번홀(파4) 이글과 버디 7개를 잡아내는 선전을 펼치며 8언더파 64타를 쳐 미켈슨에 1타차 2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의 나상욱(22·코오롱)은 버디 2개를 보기에 3개로 맞바꾸며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89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럽과 축구 4인방' 주말밤 출격

유럽 바리그에 진출한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29·토트넘), 안정환(30·뉘스부르크), 차두리(26·프랑크푸르트)가 주말 밤 일제히 출격한다.

'습격자' 박지성은 1일 오후 11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볼튼 리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5~2006 프리미어리그 32차전 볼튼 원더러스와 원정경기에 나선다.

'초통이' 이영표도 같은 시각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리그 32차전 원정경기에 출전, 올

시즌 23번째 풀타임 활약을 이어나간다. 이보다 30분 앞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안정환과 차두리가 다시 한번 '월드컵 승부'를 치른다. 안정환은 볼프스부르크와 원정 경기, 차두리는 베르더 브레멘과 홈 경기

에 나선다.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 배여백 코치는 이번 주말 프랑크푸르트의 홈 경기를 다시 관찰 계획이어서 차두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한기주 안방서 호된 신고식

LG전 선발등판 3이닝 6실점



'황금팔' 한기주 (19·KIA)가 안방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또 다시 프로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한기주는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LG와의 프로야구 시범경기 12차전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1점 홈런 포함 5안타를 두들겨 맞고 6실점했다.

지난달 2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 호투로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던 한기주는 26일 두산전 3.1이닝 3실점에 이어 2경기 연속 부진으로 방어율이 7.84로 치솟았다.

한기주는 이날 경기 초반 최고 149km의 빠른 볼로 상대 타선을 제압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3회 박경수에게 프로 입단 후 첫 홈런으로 투런포를 허용한 뒤 심하게 흔들

리기 시작했다. 이어나온 이병규를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냈고, 후속타자와의 대결에서도 와일드 피칭을 보이며 3실점했다.

4회에 최동수, 이종열에게 연속 2루타에 이어 조인성을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낸 한기주는 결국 한 타자도 잡지 못하고 이상화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KIA는 1회 이종범의 2루타와 손지환의 3점 홈런을 묶어 4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선발 한기주의 제구력 난조로 LG에 5-9로 패했다.

SK는 16안타를 몰아치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삼성을 9-0으로 완파했고 롯데는 1회말 2사 1, 2루에서 손인호의 적시 우중월 2루타로 뽑은 선취점을 잘 지켜 한화에 1-0으로 이겼다.

잠실구장에선 현대와 두산이 공방전 끝에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상무 중위권 도약 날갯짓

오늘 창원서 경남FC와 경기



올 시즌 첫 승 탈환으로 사기가 오를대로 오른 광주 상무가 시즌 두번째 제물포 신생팀

경남FC를 노린다.

지난달 29일 김용희와 남궁도의 연속골로 부산을 2-0으로 완파한 광주는 1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경남FC와 프로축구 삼성 하우엔 K-리그 6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팀 순위가 11위에 탱크된 광주는 '국가대표 상병' 정경호가 부상으로 빠져 전력 운용

에 다소 차질이 있지만 최근 상승세인 '남궁도-남궁웅' 형제를 투입으로 내세워 승리의 찬가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남 드래곤즈도 같은날 부산아이파크와 원정 경기를 펼친다.

시즌 4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은 '20경기 연속 무승'이란 부진의 늪에 빠진 부산을 희생물로 선두권으로 도약할 태세다.

이날 울산-수원전도 빅 카드를

울산 이천수는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수원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김남일을 대신해 송종국이 중원의 핵으로 나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일(토)
 - ▲V리그 챔피언 결정 4차전(삼성화재-현 대캐피탈)(14 : 15·KBS1)
 - ▲프로축구 전기리그(울산-수원)(14 : 50·SBS스포츠)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 : 50·SBS스포츠)
 -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볼튼-맨체스터Utd)(23 : 00·MBC ESPN)
- 2일(일)
 -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뉴캐슬-토트넘)(01 : 00·MBC ESPN)
 - ▲프리메라리가 31R(바르셀로나-R.마드리드)(05 : 00·Xports)
 - ▲프로야구 시범경기(LG-두산)(12 : 50·SBS스포츠), <삼성-롯데>(13 : 00·MBC ESPN)
 - ▲프로축구(광주상무-부산아이콘스)(13 : 50·KBC)



제2회 보성늪차 마라톤 대회

함영조와 함께하는

- 온주리러 영웅 함영조 선수가 배려분리 함께 달립니다.
- 참이한 코스와 동호회 여러부와 기록을 단축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 달릴이 해인분을 위하여 꼭 넣은 사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커피 요정으로 제공되는 보성다당체와 함께 합니다.

일 : 2006. 5.7(일) 오전 9시

장 소 : 보성군 공설운동장

참가종목 : 풀코스, 하프, 10Km, 5Km
해니매들코스, 하프, 10Km)

참수기간 : 2006. 4. 14(금)까지

홈페이지 : http://www.boseongmarathon.net

문 : 061) 650-5291~2

보성군청 : http://www.boseong.go.kr

광주일보 : http://www.kwangju.co.kr

한국마라톤협회 : http://www.kmof.or.kr



주최 | 보성군 · 광주일보사 주관 | 전국마라톤협회